

손흥민의 토트넘 더 꼬인 '살인 일정'

오리엔트 선수 코로나 확진에 카리바오컵 3라운드 경기 취소 연기 땀 하루 간격 경기 치를 수도

손흥민(28)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가 카리바오 컵(리그컵) 3라운드 경기 취소로 '살인 일정'이 더 꼬였다.

23일(한국시간) 이른 오전 열린 예정이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 4부 리그 레이턴 오리엔트의 2020-2021시즌 리그컵 3라운드 경기는 오리엔트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발생해 전격 취소됐다.

경기 일정이 다시 잡힐지, 아니면 토트넘이 몰수 승으로 4라운드에 진출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언론은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TV 중계권료 등이 걸려있는 데다 토트넘 몰수승

으로 처리한다면 오리엔트 같은 중소규모 클럽이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이절 트래비스 오리엔트 구단주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올바른 일을 한 결과가 몰수패라면 앞으로 축구계는 물론이고 영국 전체에 더 나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기'로 결론이 나면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리그컵 4라운드 경기가 이달 29-30일로 잡혀있어, 3라운드 경기가 이달 중으로 다시 잡힌다면 토트넘엔 최악이다.

토트넘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스켈디야(마케도니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예선 3차전 위해 먼 원정길에 올라야 한다.

이어 이들 뒤 뉴캐슬과 정규리그 홈 경기를 치른다.

이달 중 리그컵 3라운드 경기가 잡힌다면 단 하루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게 될 수 있다.

만약 리그컵 4라운드 일정까지 연기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A매치 기간을 제외하면 10, 11월에도 토트넘은 거의 빠짐 없이 주중 경기를 치러야 한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여서 유럽 대륙 원정길 부담도 커진다.

이날 예정대로 오리엔트전이 열리는 게 토트넘과 손흥민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인 셈이다.

결국 모리뉴 감독이 리그컵 3라운드에 1군을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리그컵 경기가 연기돼 프리미어리그 클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리그컵 8강전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대회 일정과 겹치자 리그컵 8강전에 23세 이하 유소년팀을 출전시켜 애스턴 빌라에 0-5로 진 바 있다.

2001년에는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규리그 경기를 치른 뒤 불과 24시간 만에 리그컵 경기에서 맞대결(아스널 4-0 승)을 펼친 바 있다.

/연합뉴스



'4골 새 역사' 손흥민 AFC '이주의 해외파' 후보에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4골'이라는 새 역사를 쓴 손흥민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주간 최고의 해외파'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AFC '주간 최고의 해외파' 투표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중 지난 한 주(15~21일)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정하는 투표로 오는 26일까지 AFC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AFC 홈페이지 캡처)



'2020 전남GT(Grand Touring) 대회' 슈퍼6000 클래스 부문 경주 장면.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영암 '2020 전남GT대회' 성공리 막 내려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0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는 "지난 20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 상설코스(3.045km)에서 열린 대회가 코로나 사태에도 성공적을 치러졌다"고 밝혔다. 전남GT는 전남에서 열리는 가장 큰 종합모터스포츠 대회다.

경기는 전남내구, 슈퍼6000, GT300, 슈퍼바이크, 레디컬, 드리프트, 오프로드 7개 클래스로 진행됐다. 전남GT를 대표하는 전남내구는 차종 구분 없이 마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프로, 아마추어가 함께 참가하는 통합 클래스다.

내구300 클래스에서는 60분 제한시간 동안 41

랩을 달린 비터R&D의 남기문(58분56초081)과 백철용(59분06초397)이 나란히 내구300 클래스 1, 2위를 차지했다.

내구 200클래스에서는 39랩을 달린 장우혁(Jpex개리지, 59분03초124)이, 내구 100클래스에서는 44랩을 달린 최태양(유로모터스포츠·1시간02초964)이 각각 우승했다.

슈퍼레이스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고 수준, 최고 성능의 프로대회인 슈퍼6000에서는 29랩을 달린 황진우(준피티드)가 38분47초45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김종겸(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은 38분48초746으로 2위에 올랐다.

310마력 이하의 아마추어 투어링카 레이스의 GT300에서는 김재우(오일클릭)가 25분50초861

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2개 슈퍼바이크대회(KSBK·KRRC) 통합전인 슈퍼바이크에서는 송규한(두카티SRS)이 21랩을 27분24초590에 질주하면서 KMG클래스 우승을 거머쥐었다. 오현승(동성모토라드&테크니션)은 21랩을 28분17초004에 주파해 라이딩하우스 클래스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2020 전남GT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철저한 방역과 출입통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건사고 없이 일정을 소화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전남GT의 일환으로 경기에 참여했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도 무사하고 무관중 경기 수를 하나 더 늘렸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주최하고, ㈜ASA에서 후원하는 ASA-KIC컵은 10월 25일에 3-4전 더블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희찬 소속팀 라이프치히, 노르웨이 공격수 쇠를로트 영입

황희찬(24)이 뛰는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했다.

라이프치히는 22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털 팰리스 소속인 노르웨이 국가대표 공격수 알렉산데르 쇠를로트(25)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유럽 언론이 추산한 그의 이적료는 2000만 파운드(약 298억원)다.

195cm의 장신 공격수인 쇠를로트는 지난해 8월 2년 임대 계약으로 터키 트라브존스포르에 임대됐는데, 그중 첫해인 2019-2020시즌 터키 1부 슈페르리그 정규리그에서 24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오르고 팀 우승을 이끌었다.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는 49경기 33골을 기록했다.

이번 2020-2021시즌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었으나 지난 시즌 맹활약에 힘입어 빅 리그의 주목을 받았다. 손흥민(28)이 뛰는 EPL 토트넘도 관심을 두고 영입전에 나섰다 라이프치히가 행선지로 결정됐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등은 황희찬이 이적할 때처럼 쇠를로트에 대해서도 '티모 베르너(현 첼시)의 대체자'로 평가했다. 황희찬과는 스타일이 다른 타킷팅 스트라이커라 공존 가능성이 충분하다.

2013년 노르웨이 로센보르그에서 프로 데뷔한 쇠를로트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트라브존스포르 외에 흐로닝언(네덜란드), 미트윌란(덴마크), 헨트(벨기에) 등 유럽 다양한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다.

노르웨이 국가대표로는 2016년부터 A매치 24경기에 출전해 8골을 넣었다.

마르쿠스 크뢰세 라이프치히 단장은 "쇠를로트는 신체조건이 좋고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선수다. 헤딩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우리의 축구에서 중요한 능력들을 모두 지녔다"고 말했다.

쇠를로트는 "첫 협상 이후 바로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싶어졌다. 올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공격 축구가 제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다"며 새 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서한술의 매서운 눈빛 22일 고양시 빛마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PBA 팀리그 2020-21 2라운드 둘째 날 SK렌터카 위너스와 블루원 엔젤스 경기에서 블루원의 서한술이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토머스, 이벤트 경기서 매킬로이·로즈 제압

타이거 우즈와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조가 이벤트 경기로 열린 페인스 벨리컵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저스틴 로즈(잉글랜드) 조를 물리쳤다.

우즈와 토머스는 23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홀리스터의 페인스 벨리 골프 코스에서 열린 페인스 벨리컵 대회에서 매킬로이-로즈를 연장전에서 제압했다.

이날 경기 초반 6개 홀은 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각자의 공으로 경기한 뒤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포볼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렸다.

또 이후 6개 홀은 2인 1조가 공 한 개를 번갈아 치는 방식인 포섬 방식으로 진행됐고, 마지막 6개 홀은 싱글 매치플레이로 이어졌다.

초반 포볼에서는 매킬로이와 로즈 조가 이겼고, 포섬은 우즈와 토머스 조가 승리했다.

이어진 싱글 매치플레이에서는 토머스가 매킬로이를 2홀 차로 물리쳤고, 로즈는 우즈를 1홀 차로 꺾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

이 코스는 우즈 재단이 설계를 맡았으며 미국 내에서 우즈가 설계한 첫 퍼블릭 코스다.

이벤트 대회 수익금은 페인 스텐트먼트 가족 재단에 기부한다.

스튜어트는 1989년 PGA 챔피언십, 1991년과 1999년 US오픈에서 우승한 선수로 1999년 라이더컵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끈 뒤 그해 10월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당시 그의 나이 42세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디바
2관	물란
3관	외 문화
4관	기괴괴성형수
5관	디바
6관	경객
9관	테넷
7관 씨네커플	물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8관 씨네커플	아웃포스트, 기괴괴성형수, 프란시스 하, 낙엽귀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